５年生以上 課題文④

**소리에서 온 이름 ‘범’**

호랑이의 순 우리말은 ‘범’이에요.

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범을 무척이나 무서워했어요.

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잠을 안 자고 보채 는 아이들을 재울 때

“잠 안 자면 범이 잡아간다.”하고 겁을 주　실 정도였지요.

범의 울음소리는 ‘어흥’이에요.

그런데 숲이 울창한 산 속에는 빽빽한 나무와 골짜기 때문에‘범’의 울음소리가 ‘엉’하고 들린답니다.

사실은 울림소리가 벙벙해져서 ‘범! ’하

고 들려요. 서양 사람들은 폭탄이 터지 는 소리를 ‘범(bomb)!’이라고 하는데, 우리나　라 사람들한테는 숲 속에서 큰소리 로 우　는 범의 울음소리가 마치 ‘범!’ 하고 폭탄

터지는 소리처럼 들렸던 거예 요.

어때요? 이제는 ‘범! ’하면 무섭죠?

音からきた(付けられた)名前「ボム」

の本来のウリマルは「ボム」です。

昔、ウリナラの人達はのことをすごくれていました。

おばあさんやおじいさん達が、夜ずにだだをこねる子ども達をかす時

「早くないと、(ボム)にまるよ。」とこわがらせたくらいです。

ボムの鳴き声は、「オフン」です。

でも、森がこんもりとした山の中では、びっしりとした木と谷間のせいで、ボムの鳴き声が「オン」と聞こえるそうです。

実は鳴き声がいて、「ボム!」と聞こえるのです。西洋の人達は、がする

音を、「ボム！(bomb!)」と言いますが、

ウリナラの人達には森の中で大きな声でえるの鳴き声が、まるで「bomb！」とがする音のように聞こえたということです。

どうですか？これからは、「ボム！」というといでしょう？